

전북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도전장'

국가유산청,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도장 중심 수련문화' 가치 인정 도전 남북 공동 확장 등재 가능성도 검토 무주 태권도원 중심 세계화 추진

전북도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도는 국가유산청,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해 지난 3월 31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Taekwondo: A Dojang-centered Korean Training Tradition)'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태권도의 전통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전북을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추진이다.

이번 등재 신청은 국가유산청이 총괄하고 전북자치도와 태권도진흥재단이 협력해 추진했으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영상자료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태권도는 도장을 중심으로 기술과 규범, 수련 가치가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공동체 문화로, 사범과 수련생 간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대와 교육 체계가 핵심 가치로 평가된다.

도는 그간 태권도의 무형유산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2016년 '전북겨루기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데 이어, 국기원 및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이

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월 국가유산청 인류무형유산 등재 대상에 선정되며 이번 신청으로 이어졌다. 현재 등재 절차는 국가유산청이 총괄하고, 무주 태권도원에 위치한 태권도진흥재단이 실무를 맡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도는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예상

되는 북한 ITF와의 공동 또는 확장 등재 논의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역시 씨름 사례와 같이 남북 공동 등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등재 여부는 북한과의 협의 방식 및 유네스코 심의 절차에 따라 공동 등재는 이르면 2026년 말, 확장 등재는 2027년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경

우 전북자치도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무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문화·관광·교육 산업의 확장도 기대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는 전북자치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전북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천연 물류허브' 뜬다 1일 완주군 테크노제2산단에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로젠(주) 김동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젠(주) 물류터미널 기공식이 열렸다. (관련기사 8면)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통합돌봄 현장 점검...체계 강화 나서

전주지역자활센터 방문 운영 점검 시각지대 선제 발굴·현장 중심 강조

전북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일 전주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각지대 없는 대상자 발굴과 현장 중심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이후 정책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특화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군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지역 기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 행정부지사는 전주시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자활센터 특화서비스 운영 성과를 보고받은 뒤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노홍석 부지사는 '영양 더하기 사업'과 병원 동행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에 대해 "혼자 병원을 이용

하기 어렵거나 식사 해결이 어려운 도민에게 꼭 필요한 핵심서비스"라며 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돌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는 통합돌봄 수행기관으로서 식사 지원,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락·맞춤형 영양식, 간병서비스, 세탁·배출 등 총 19개 사업단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병·세탁·인테리어 등 7개 자활기업을 통해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

지사는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읍면동뿐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지역복지기관 등 생활 현장의 접점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수행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도, 동물병원 운영 집중 점검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 잡는다

4월 한달간 운영 전반 점검 실시 민원·위반 이력 병원 우선 대상

전북도가 반려동물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달간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8월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도의 적정 이행 여부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하되, 과거 위반 이력이나 진료비 사전 고지 미이행 민원, 반복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찰 및 수술 등

진료비용 게시 여부(홈페이지 포함)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준수 ▲유효기간 경과 약제 사용·보관 여부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특히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및 처방전 발급 기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김관영 지사 긴급 감찰

청년 모임서 대리비 지급 논란 CCTV 영상 제출...경찰 수사 착수 정청래 대표, 긴급 윤리감찰 지시 김 지사 "전액 회수...문제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김관영 전북지사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찰 지시 사실만 공개했을 뿐, 제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고,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동영상도 첨부됐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에 들어갔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해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도내 청년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며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그 영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는 상시 금품행위 공여금지(의무가) 있어 (대리비)지급 후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회수를 지시했다"며 "그 다음 날 전액 회수됐다. 이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당 주인이 언젠가 접근해 온 적이 있다. 영상이 있는데 만나자는 이야기였다"며 "당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만나지 않았는데 그 영상이 유출된 것 같다"고 사건이 확대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당시 모임에 15명 정도의 청년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주 사는 친구에게 1-2만 원, 군산은 5만 원, 정읍·고창은 10만 원 정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 술이 깨고 스스로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들한테 빨리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모임 주최 청년 대표한테도 회수해야 한다고 했고,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리비 지급 자체는 본인의 불찰이었지만 사후 조치를 완벽히 마친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감찰과 경찰수사) 조사과정에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소중한 분들에게

고창군수협 수산물

선물해보세요

| 조 합 장 | 김충
| 상임이사 | 김영식
| 이 사 | 허행숙 이봉남 최경수 윤도경 황주동 김원택 김진근
| 감 사 | 이성태 송홍식

풍천장어

수협에서 인증한 양만장에서 치어부터 정성껏 1년간 길러내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풍천장어는 고소한 맛이 강하고 육질이 탱탱해 씹는 맛이 좋아요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지주식재래김

지주식 김은 충분한 광합성을 일으켜 성장하도록 일정한 시간을 노출관리하여 김 본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친환경적 양식 방법으로 생산된 자연식품이기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www.gochang-suhyup.co.kr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장어 김 (063) 561-5949 핸드폰 010-4390-5949

도, 자연재난 대응 역량 강화 현장형 워크숍 가동

자연재난 담당자 80여명 참여
도·시군 합동 협력체계 점검
호우 대응·피해조사 등 실무 교육
부안댐 등 현장 견학 대응력 제고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안군 모항 하나투어호텔에서 도 및 시·군 자연재난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난분야 소통 역량 강화 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빈번해지는 대형 자연재난에 대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호우)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이세원 교수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련 강의와 자연재난 분야 주요 현안 사항 공유가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부안댐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 관리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견학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평소 재난안전 점검과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른 일일 상황 관리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 '여행가는 달' 맞아 관광 혜택 총력

숙박·관광·투어패스 등 할인
'SNS 인증' 참여형 이벤트 운영

전북도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숙박 할인과 관광지 할인,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1박 시 최대 3만 원, 연박 시 최대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지역 관광 수요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할인, 숙박료 및 관광택시 할인, 관광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투어패스 통합권 20~30% 할인 ▲관광기념품 100선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시군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원 관광택시 및 달빛정원



<사진=전북도>

50% 할인 ▲순창 발효테마파크 입장료 30% 할인 ▲고창 토굴발효 체험 및 승마 프로그램 할인 ▲부안 관광택시 50% 할인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다. 아울러 임실군과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SNS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원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아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이원택 "20조 메가펀드로 전북 경제 대전환"

5조 성장펀드·15조 유치 투트랙
외부 의존 탈피 선순환 구조 구축
도민 투자 참여 유도 혜택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1일 전북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20조 메가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자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자본이 투자하고,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의 자본이 전북의 기업과 사람에게 퍼져도 도는 자생적 환경을 만들어야 진정한 경제 대전환이 가능하다"며 "전북 자본이 투자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본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 '국민성장펀드 유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전북 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먼저 5조 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부의 투자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북은 토종 투자운용사 하나 없이 외부 자본에 의존해 왔고,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이 구조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시군·금융기관·도민이 함께 참여해 5천억 원의 종자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5조 원 규모의 전북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조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도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 전북

전략사업과 유망향토기업에게 끊임없는 양분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민간 엑셀러레이터(AC) 20개사, 벤처캐피탈(VC) 5개사 이상을 육성해, 토종 자본으로 일궈낸 과실이 다시 전북 경제로 순환되는 생태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북미래성장펀드 출자금의 20%인 1천억 원을 도민 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도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유인을 위해 투자 도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100%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15조 원

을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도지사 직속 '투자유치 위원회'를 신설해 더 큰 국가 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유치된 자금은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신산업 △이차전지·수소 △첨단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입돼 전북 경제의 외형과 체질을 동시에 바꾸는 '메가 프로젝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로 기업 유치와 투자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다"면서 "20조 메가펀드는 전북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게 임제인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펀드 자금을 통해 우량 기업 유입과 도민 수익 확대를 이끌고, 전북을 도전과 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승=김영목기자

전북도, '경험 인력' 재난안전 지킴이 투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모집
50~70세 전문 경력자 우대

전북도는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14명의 '재난안전 지킴이'는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부안 등 도내 7개 시군에 배치돼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산사태 취약지,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정기 예찰과 현장 점검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도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할

동과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퇴직 공무원으로, 토목·방재·수자원·산림·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금 미수급자와 드론 자격증 소지자, 방재 분야 전문교육 이수자는 우대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월 최대 120만 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인사혁신처 '노하우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퇴직 공무원의 경험을 지역 안전관리 체계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AI로 산불 잡는다' 24시간 감시망 가동

AI 기반 ICT 자동 감지로 조기 대응
특별대행기간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전북도가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산불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며 봄철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AI 기반 산불감시 IC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산불감시 CCTV 영상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

지하고, 이를 즉시 상황실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인력 공백 시간에도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해 조기 대응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송전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감시카메라를 확충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해 감시 시각각도를 높이는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중심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주말과 연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해 소각 행위를 사전에 줄이고 있다. 특히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지역과 고령 농가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산불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사람이 남고, 지역이 살아 납니다.



전주시 '전북특별법' 대응 방안 제시

이슈브리프 제19호 발간 문화산업진흥지구·탄소소재 등 전주시 직접 연관 특례 다수 반영

전주시정연구원은 '전북특별법' 제2차 일부개정 의미를 분석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이후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2개 특례 중심 대안으로

제구성된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에 대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 법률'에서 '실행가능한 종합형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개정 특례를 △농생명·에너지 전환 △미래첨단·제조혁신 △민생·생활서비스 △인재·정주 △투자·재정·자치 운영의 다섯 축으로 분류했다. 특히 △산업 특례와 생활 특례 △자치 운영 특례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편입된

점을 개정 핵심 특징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32개 특례 중 전주시와 직접 연결되는 특례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탄소소재·의료기기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평생교육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외국인 인재 △다자녀 우대 등을 도출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는 시가 추진 중인 기본구상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서 영화·영상·

디지털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 탄소소재·의료기기과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특례는 전주시 탄소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실증·제조혁신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단계별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전북체육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모색

2026 전북체육포럼 세미나 개최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지역 체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일 '2026 전북체육포럼 세미나'를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전북체육포럼과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전주교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지역 체육계 교수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체육 발전과 올림픽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는 올림픽 유산 관리 방향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 올림픽 레거시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 등 핵심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올림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시는 세미나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미래 발전 전략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연구 성과를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올림픽 유치 논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과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 국제 우호 교류 위해 전주 방문

시, 경제산업-문화관광 시장 양도시 간 실질적 경제 협력 방안 논의·우호 협력 관계도 재확인

폴란드의 항공우주 산업 중심도시인 제슈프시(Rzeszow) 대표단이 전주시와의 국제 우호 협력과 경제 교류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콘라드 피요텍(Konrad Fijolek) 시장을 비롯한 제슈프시 대표단

5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폴란드 제슈프시는 유럽 최대 항공산업 클러스터인 '항공 밸리(Aviation Valley)'의 거점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인 전주시와는 지난해 6월 탄소복합재·항공우주 분야의 상호 경제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도시는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

관으로 전주에서 열린 한·독·폴 '탄소복합재 테크브리치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양 도시간 이루어진 지속된 교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제슈프시 대표단의 방문이 성사됐다. 제슈프시 대표단은 전주 방문 일정 중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전주시의 주력 산업인 탄소 산업 관련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산업 역량을 확인했다. /정소민 기자

대표단은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해 전주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을 체험했으며,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양 도시 간 문화 교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 도시는 공식 면담을 통해 항공우주와 탄소복합재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공동 성장 위한 기업 중심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소민 기자



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주의

전주시보건소 치료제백신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전주시보건소는 봄철 야외 활동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건소는 치료제·백신 없는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강조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봄철 대표적인 진드기매개감염병은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증상은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된다. 아울러 보건소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약 18.5%에 달해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산책로 숲 등 총 38개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설치된 해충기피제는 버튼을 누른 뒤 손잡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보건소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기피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진드기매개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이나 산책 등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활동 전 진드기 기피제를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사용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즉시 샤워 후 옷을 갈아입고, 머리카락과 귀 주변, 허리, 무릎 등 부위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진드기매개감염 관련해 최근 3년간 전주시 SFTS 확진자는 지난해 2023년 3명, 2024년 0명, 2025년 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6~11인승 차량 구입 시 최대 500만원 지원

전주시가 3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패밀리카 지원은 3자녀 가구 중 6~11인승 차량 구입 시 구매비용의 1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30여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신청 및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서 18세 이하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 또는 당해연도 내 구매계약 및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차량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이 이뤄진 자동차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지원된다. 한 △공고일 기준 가족구성원 명의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6인 이상 11인 이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경우 △유사 목적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의

최초 식별 문자가 'k(대한민국)'가 아닌 차량 △지방세 체납자 또는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패밀리카 지원사업에 대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족 동반 이동 여건 개선 △안전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위기청소년 34명 '맞춤형 특별지원'

9개월간 총 6,432만원 지원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5층 공동체 공유공간에서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13개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안전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점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제1차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

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비나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신청자들의 생활 환경과 위기 정도에 대한 개별 사례 심의를 거쳐 최종 34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향후 9개월간 총

6432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기 상황에 따라 생활·학업·상담·건강·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약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에 현장 단속 방식도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구체화 되어 경찰관이 약물 운전자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

태를 확인하고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에는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약검사 및 소변·혈액검사까지 요청하며, 간이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약 음에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은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은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신설병원'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전주완산소방서는 완산구 백제대로 20에 위치한 새강병원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자동 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은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통제단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별도의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무각본 방식으로 실시됐다. 신설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재난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전주완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대응 단계별로 통제단을 가동하고, 각 부·반별 임무 수행과 개인별 역할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기 상황 판단부터 지휘·통제,

구조·구급, 이송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착대 및 지휘대 활동 점검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상태 확인 △선착대장의 상황 보고 및 초기 대응 능력 점검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적절성 평가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 점검 △재난 상황 인문 브리핑 훈련 등이 포함됐다. 소방서는 대형 의료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자 대피와 다수사상자 이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협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오영민 교수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서 수상

구연발표 학술상 수상 노인경추질환 수술 연구성과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신경외과 오영민 교수(사진)가 최근 개최된 '2026 제20차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에서 구연발표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상은 노인 신경외과 분야, 특히 고령의 경추 질환 환자의 치료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오영민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노인에서의 경추 전종양 괴사성 골절'에 대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고령 환자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추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수술 전략과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경외과 척추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노인 경추 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 임상적 접근과 수술 기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더하고 있다. 경추 전종양 괴사성 골절은 목뼈 앞쪽의 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이다. 두꺼워진 인대가 식도를 압박해 심한 삼킴 곤란(연하곤란)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추의 골화된 전종양대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실제 분원에서 해당 치료를 시행해 얻은 우수한 임상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또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경추 질환 환자를 위해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최소 침습 및 다각적인 접근법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영민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경추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끊임없는 연구와 풍부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척추 질환 치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자연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매회 25명씩 선착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국민 누구나 전북지역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4월부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해설, 마을주민이 차려내는 생태밥상, 자연 친화적 체험활동 등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먹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매회 25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올해 4월에는 남원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에서 2회, 10~11월에는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과 정읍 월영습지 보호지역에서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해설, 마을주민이 차려내는 생태밥상, 자연 친화적 체험활동 등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먹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매회 25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레전드 50+'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및 단일 지원...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테크노파크는 1일 대강당에서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전용 사업과 기업지원단 추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대상은 1.0 참여기업인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기업 104개사와 2.0 참여기업인 농생명바이오·탄소융합소재 기업 26개사 등 총 130개사로, 참석 기업들은 사업별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확인했다. 행사에서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전용사업 안내 △기업지원단 추진 지원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디자인, 마케팅 등 지원 내용을 확인하며 사업 참여 방향을 구체화했다. 1.0 참여기업 대상 2026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총 5억2천만원(520백만원) 규모로 17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최대 40백만원)과 단일 지원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2.0 참여기업 대상 2026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이번이 1차 모집 공고로, 총 2차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2억4682만원 규모로 7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1.0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패키지 지원의 경우 최대 45백만원까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발굴

6월 30일까지 경진대회 전용 누리집(data.mafra.go.kr)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서류)·2차(발표)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명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소민 기자

"전북 우수농산물 영남권 소비자 공략"

5일까지 특판전 원예농산물 판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도내 원예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1일부터 5일까지 영남권 소비자 대상 전북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특판전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전북 우수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전북 우수농산물 판매는 부산 탐마트 신평점을 시작으로 영남지역 76개소 전점에서 삼레 딸기, 임실 토마토, 전주 배

품목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탐마트는 영남지역 향토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으로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 구성비가 총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신선식품 전문 마켓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행사를 통해 영남권 소비자들에게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해, '농심전심'의 가치 아래 '농심에 진심인 든든한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1일부터 5일까지 영남권 소비자 대상 전북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전북농협>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판로 확대 나서

공영홍쇼피프 코칭 상담회 상담회는 공영홍쇼피프 전문MD가 TV홍쇼피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몰 등 입점에 필요한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공영홍쇼피프 전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코칭상담회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영홍쇼피프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숨은 우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판관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국민제안' 포상

국민 의견 적극 반영 추진... 7건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하 공단)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연금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최우수 국민제안' 중 7건을 최종 선정해 포상한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렇게 접수한 제안을 분기마다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공단은 2025년에는 총 235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했고, 실효성, 창의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은상 3건, 동상 2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사례로는 △행정정보 공유 이용을 통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증명서 발급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채널 확대 △일용근로자 기금대상 판단 기능 개발 등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의견이 더 편리한 연금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제안은 △국민연금 누리집·소통과 참여-국민제안 △모바일앱 내 결



국민연금-고객센터-국민제안 스피크 로상시 접수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안산외국인금융센터' 개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1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사 1층에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하고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를 본격 확대했다. 안산외국인금융센터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조성된 특화 점포다. '안산외국인금융센터'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요 산업단지 및 인접한 입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 고객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은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을 고려해 주말에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상담 운영을 도입한다. 또 외국인 고객 눈높이에 맞춘 대출, 예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사고신고 등 최적화된 금융 상담과 다양한 언어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 배치를 통해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통해 외국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국가창업시대 실현 '모두의 챌린지' 추진

'버티컬' 등 2개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협업 지원

중기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 위한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일 '모두

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선도기관으로 LG전자와 웰컴이 참여하며, 가전, 스마트기기, 로봇 등의 제품과 AI 서버, 로봇, CCTV 등에 활용되는 모듈 등 총 23개 협업 과제(23개사)를 공고하고 지원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스타트업에 기술실증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성과 우수 스타트업의 AI 기술은 수요기관의 제품에 탑재, 신규 거래처 발굴 등 국내외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관으로 LG AI 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등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델(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을 비롯한 KT, 오라클 등 국내외 자체 LLM 보유 기업이 참여해 LLM 기반 제조·플랫폼·산업현장 등 도메인별 자동·효율화 기능 중심의 AI 적용 25개 협업 과제(25개사)를 공고·지원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1억원의 기술실증 등 협업 자금을 지원하고, 성과 우수 스타



타트업은 수요기업 플랫폼에 AI 솔루션 탑재, 파트너사 연계를 통한 공동상품화, 외부 컨소시엄 참여 기회 등의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세부 협업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AI 스타트업은 공고일인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정기대의원총회 열어

신협사회공헌재단(회장 고영철, 이하 신협재단)은 지난달 31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재단의 2025년 사업실적 및 결산 공유와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확정, 중장기 사회공헌 추진 방향을 담은 '비전2030'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재단 운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임원들에 대한 재임기평과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2부 본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등을 통해 창업 열풍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이남호 공약 열어보니 서거석 정책 '판박이'

서 전 교육감 핵심 공약 교육장 임명제 등 겹쳐... "차별성 없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들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예비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과 상당 부분 겹치며 '공약 재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제' 도입 △교육장 인사·재정 권한 확대 △교육지원청의 '학교 종합지원 허브' 개편을 통한 교사 행정 업무 경감 등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이번 혁신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서거석 전 교육감이 4년 전 내걸었던 공약 및 현재 도교육청 사업과 사실상 일치한다며 차별성 부재를 꼬집었다.

실제 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제'는 서 전 교육감의 '교육장 공모제 확대'와 구성원 참여로 교육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

다. 교육지원청을 '학교 종합지원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 역시, 서 전 교육감이 지원청 내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공약과 명칭만 다를 뿐 방향성이 동일하다.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내세운 교육감 직속 '전략재정 투자유치지원단' 신설안 또한, 서 전 교육감이 내건 직속 '국가예산추진단' 설립 구상과 흡사하다.

도내 한 교육계 인사는 "학교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교육장 인사에 외부자를 참여시킨다는 구상은 이미 과거 선거에서 전임자가 뼈대를 세웠던 내용"이라며 "후보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

이나 정책적 차별성 없이, 공약을 재활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전임 교육감 시절 공약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 정책보다 한층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며, 그동안 차별화된 공약도 꾸준히 발표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전 교육감이 전북대 제 15·16대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남호 예비후보는 산학협력담당장을 역임하며 호흡을 맞췄으며, 이후 이 예비후보는 서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제17대 총장에 취임한 바 있다.

전주교대, 4월 1일자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

김경민 교수 등 4명

전주교육대학교가 2026년 4월 1일자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1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본부동 총장실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는 장지성 총장과 교무처장이 참석해 승진 대상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영어교육과 김

경민 교수 등 총 4명이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승진 임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어교육과 김경민 △과학교육과 김현태 △사회교육과 신재준 △초등교육과 이림 등이다.

장지성 총장은 "우리 대학이 초등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현대>

달라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조잔디 조성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구장 전주월드컵경기장(전주성)이 달라진다.

전북현대대는 전주시에 함께 경기 중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안전을 위해 경기장 그라운드 주변에 인조잔디를 조성했다.

터치라인 밖은 경기 중 선수들이 치열한 몸싸움 등을 펼치며 넘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시각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조잔디 조성은 전북현대와 전주시가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진행됐다.

전북현대대는 향후 팬들에게 안전하고 편의성 높은 경험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주시설공단과 함께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태권도 유망주 전주스포츠클럽 소속 문지담, 국제대회 출전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신)가 추진하고 있는 '월드스타 육성 선수'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 꿈나무 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시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1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태권도 유망주인 전주스포츠클럽 소속 문지담(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이 청소년 대표 선수단으로 발탁 돼,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문지담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펼쳐지는 '2026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태권도 유

망주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지담은 국대대표 선발대회에서 -63kg급에서 우승을 차지, 각 체급 1위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문지담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도체육회의 월드스타 육성 선수로 선정됐고 영상분석과 심리지원, 맞춤형 운동재활, 훈련용품 지원 등 밀착지원을 받고 있다.

문지담 선수는 "청소년 대표로 선발돼, 매우 기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체육회는 이번 국제대회 출전을 통해 도내 유망선수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전국체육대회 및 국대대표 발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전북체육회>

/장정철 기자

군산시, 4월 5일 새만금마라톤대회 개최

군산시는 오는 5일 개최되는 '2026 새만금마라톤대회'와 관련해, 대회 당일 월명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이 통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사전 확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및 마스터즈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로, 특히 올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가 관건이다.

대회 당일인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발지인 월명종합운동장 주변과 마라톤 코스 구간별로 단계적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촌동 구간 코스를 변경해 우회도로를 확보했다.

특히 대회 당일 현장에는 운영요원과 안전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해 우회도로 안내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회 개최 20회를 맞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회 누리집을 통해 미리 통제 구간과 우회로를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전통주 '빨간월탁' 올해의 건배주 선정

정읍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국술도'에서 생산한 '빨간월탁'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6년 올해의 건배주' 탁주 부문 대표주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을 통해 총 17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탁주, 약·정주, 과실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에서 각 1점씩 총 4개 제품이 선정됐다.

탁주 부문 건배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빨간월탁'은 맑은 물과 정읍산 참살이를 주원료로 빚은 전통주다. 특히 인공색소 없이 붉은 누룩곰팡이로 발효한

홍곡을 사용해 은은한 붉은빛의 시각적 매력을 살렸으며 저온 숙성을 거쳐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구현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빨간월탁'은 앞으로 전북자치도 공식 행사의 만찬주로 건배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류 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배주 선정은 정읍 전통주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베트남 박닌성과 협력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박닌성과 타이응우옌을 대상으로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현지 행정기관·관광기업·대학·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닌성 문화체육관광청 업무협약 체결 "행정-관광 실행체계 동시 확보"

재단은 박닌성 당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고위급 인사와의 환담을 통해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박닌성 문화체육관광청과 문화·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닌성·타이응우옌서 단독 관광설명회 2회 개최, "산업·마래수요 동시 확보"

재단은 방문 기간 중 박닌성과 타이응우

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단독 관광설명회를 2회 개최했으며, 전북 관광지원 소개와 함께 전북 관광기업·문화기업·의료기관이 참여해 현지 여행사와 상담 및 상품 협의를 진행했다.

△전통의학 병원 협력 논의, "의료관광 확장 기반 구축"

재단은 박닌성 전통의학 병원의 협의를 통해 의료연수, 의료진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지 공공기관과 공동 홍보 협력 추진

재단은 하노이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주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 등과 협력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돌담길 축제'를 계기로 전북 관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 해야 할 전략입니다.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Tel_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Tel_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Tel_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



정읍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인상... "보육 환경 개선"

정읍시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급·간식 질 향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반의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전면 인상한다.

이번 단가 인상은 영아반과 유아반의 연령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더욱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상된 단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조정에 따라 3~5세 유아반과 0~2세 영아반(장아 기본반 포함)의 지원 단가가 모두 동일하게 상향된다. 기존 1일 1000원(월 2만원) 수준이었던 지원금은 1일 1240원(월 2만 48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관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3자녀 이상 가구에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

군산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자녀 중 3명 이상이 2007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총 30가구에겐 6~11인승 패밀리카 신차 구입비의 10%,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가능차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공고일 이후 신규로 등록된 국산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1일까지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제값도 높은 정책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니어클럽, 병원 출발 및 귀가 등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전북 익산시니어클럽(대표자·백종환)에서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혼자서 병원가기가 어려운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 또는 수납, 진료를 동행하고 평일(월~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무료이나 동행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전용 콜 사전에 약제로 서비스 이용 3일전 신청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 접수도 가능하고 익산시내 의료기관 이용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063)832-0273번으로 전화하면 언제든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에서는 노인일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익산시니어클럽이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희망자를 접수 받아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으며 병원동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갖추어 병원동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자서 병원가기가 어려운 분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익산 식품 기업, 유럽 시장 진출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출길 확보...현지 유통망 연계 지원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시가 유럽 시장의 관문인 영국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입체적 행보에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 기업인 '코리아 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익산의 우수한 식품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행보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으로 수출 문턱이 낮아진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익산시는 중동 사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손잡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서병수 코리아 푸드 대표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기반을



익산시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현지 최대 규모 식품 유통 기업인 '코리아 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익산시>

갖췄다"며 "실질적인 판매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영국 최대 유통 업체인 '테스코(TESCO)' 매장을 방문해 현지 시장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현지인들의 입맛과 음식의 진열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익산 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구상했다.

문화와 경제를 잇는 민간 협력도 강화

했다. 유럽 최대 한인 타운인 '뉴몰든'의 코리아타운 공역제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약속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식품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영국을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플라즈마 융합산업 본격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계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군산시가 플라즈마 융합 신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군산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역이 축적해 온 플라즈마 연구 역량을 산업화로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역은 오는 6월 초 완료될 예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과 함께 국가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전략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플라즈마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는 식각·증착·표면처리 등 핵심 공정에 적용되며, 첨단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는 플라즈



플라즈마기술연구소전경 <사진=군산시>

마 장비의 노후화와 고가 장비 부담, 연구 장비의 전국적 분산 등으로 인프라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장비 자립화를 위해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플라즈마 기술은 첨단 제조 산업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용역을 통해 실행 전략과 국가사업을 구체화해 군산을 플라즈마 융합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최대 90만원

정읍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

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줘 휴직을 망설이는 아빠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

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고용노동부상 '육아급여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해당 특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민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도시 만든다"

2026년 일자리정책 비전 4대 전략 논의 제시

군산시는 시정 상황실에서, 2026년 군산시 일자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해 일자리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일자리정책 비전과 4대 전략을 소개하며 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올해 군산시 일자리정책 비전인 "골목부터 산업까지, 민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도시 군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 일자리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지역 고용여건 변화와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일자리대책 4대 전략과 분야별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골목상권 및 민생경제 회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산

업 분야에서는 군산조선소 완성선 건조 전환 기반 조성을 통해 조선업 생태계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생활밀착형 정책부터 주력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투자 대응까지 균형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청년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 유입 확대 나서

군산시는 청년몰의 소비자 유입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산시상공권활성화재단은 군산 청년몰업주자협의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 군산시니어클럽과 함께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몰 경쟁력 강화 및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6일 체결된 것으로, 청년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상공권활성화재단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기획·운영하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는 외식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뉴 개선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니어클럽(군산공보리)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고객 안내와 환경 정비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청년몰 방문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체험형 프로그램, 공동 홍보·마케팅이 추진될 예정으로, 청년몰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경제과 이현현 과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결집해 세대 간 협업을 이끌어내고, 소비자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청년몰을 조성해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9세 미만 월 11만원 지급

정읍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9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해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법 개정으로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4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간 양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거주 지역별 차등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에 포함된 정읍시는 기존보다 인상된 월 1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자의 직권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미래 농업 이끌 '행복한 농부' 키운다

익산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인공 지능(AI) 기반의 농업 활용과 치유 농업,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강화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농민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먼저 시는 전문 농업인을 기르는 정규 과정인 '농업인대학'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5개 과정으로 늘려 운영하며 지역 농업 리더 양성에 힘을 쏟는다.

지난 3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까지 9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한 농업인대학은 현재 △치유농업(30명) △온라인마케팅(20명) △농산물가공(25명) 등 총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청년시니어융합은 인공지능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 젊은 농부

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농업 리더 양성과 더불어, 시는 일반 농가들이 영농 시기에 맞춰 핵심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 교육도 강화한다. 새롭게 농업에 뛰어든 귀농·귀촌인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시는 올해 150명을 대상으로 지게차·굴삭기 면허, 용접, 전기 등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실용 교육을 추진한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2015년 신축한 농업인 교육관은 연간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소풍의 장이 되고 있다"며 "농민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제1호 '청년기업 인증서' 수여

정읍시가 지난달 31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유망 기업 2곳을 선정해 '청년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성장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기업 인증제'는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대표를 맡고, 상시 고용 인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첫 인증의 영예를 안은 '주식회사 키움'은 창업 초기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연구 기반을 다진 복합 비료·사료 제조 기업이다. 또한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서 육류 가공품을 제조하며 활발하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인증 기업은 향후 3년간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전북상생협력연구소 연구 주심사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 기업가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특장산업 발굴·육성”

8개 유형 23개 프로그램 총사업비 5억원 지원 오는 10일까지 신청

김제시가 특장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페셜 차세대 성장프로젝트 2년차를 맞으며 산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시가 추진중인 김제시 미래 Special 차세대 성장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소멸대응 지역 혁신 공모사업으로 2025년 국도비 27.1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도에 지역 내

특장 기업 15곳을 선정하고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분야를 중점 발굴 지원하고 특장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기술 애로해소 컨설팅 △과제기획 지원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특장차 성능시험 △특장차 인증시험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제조현장 공정개선 등 총 8개 유형 23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20명의 고용 창출과 연 매출액 40억 원의 사업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1차년도 사업비보다 6천만원을 증액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소재 특장 제작사 및 부품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이하 RMS)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본 사업 추진으로 특장차 인적 자원 육성, 채용, 정착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인구조별 위기 극복과 미래 특장차산업 기술 개발로 특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친환경, 스마트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형 특장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김제 특장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시민의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9~29일까지 사회조사 실시

김제시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주관적 의식과 생활 만족도를 측정해 지역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김제시가 실시하는 통계조사다.

조사 대상은 김제 관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다. 조사 항목은 △일반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가족 △도 및 시 특성항목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돼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방식은 훈련된 통계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문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응답자가 대면 조사를 원치 않거나 부재중일 경우,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한 뒤 응답자가 직접 작성해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효숙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이 살고 관련된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시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조사의 결과는 자료 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경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재)고창군장학재단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 진학 이후 커지는 교육비 부담 속에서, 고창 출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본인 및 학부모로서, 30세 이하로 판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2023년 이후 대학 입학생을 지원한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주민행복센터, 고창군청 1층 인제양성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이며, 국가장학금 등 기존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차감 지원한다.

고창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학생들이 고향의 응원을 받판삼아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갯벌 이달의 새’ 꼬마물떼새 선정

보호 인식 확산 나서

고창군이 4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꼬마물떼새(학명 Charadrius dubius)를 선정하고, 봄철 갯벌을 찾는 철새의 번식 시기에 맞춰 보호 인식 확산에 나선다.

꼬마물떼새는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철새다. 고창갯벌과 인근 하구의 모래톱과 자갈밭에서 주로 관찰된다. 몸길이 약 16cm의 작은 체구지만, 검은 가슴 띠와 선명한 노란 눈테가 어우러져 다른 물떼새와 쉽게 구별된다.

꼬마물떼새는 갯벌을 빠르게 오가며 먹이를 찾는 행동이 특징이며, 번식기에는 땅 위의 오목한 곳에 알을

낳는 습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며, 위협을 받을 경우 어미 새가 날개를 다친 것처럼 행동하는 ‘의상행동’으로 천적을 유인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4월은 고창갯벌 일대에서 꼬마물떼새의 번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사립의 접근이나 이동판으로도 알과 새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탐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꼬마물떼새는 번식이 동안 작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종”이라며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소중한 생명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에게서도 일정 거리 유지 등 서식지 보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꽃빛드리축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완료

3일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

김제시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2026 김제 꽃빛드리 축제'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박승준 김제경찰서장, 이종욱 김제소방서장 등 주요 유관기관장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전반적인 축제 준비 상황을 브리핑받고, 인파 밀집에 대비한 행사장 질서 유지 방안과 교통 대책 마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번 꽃빛드리축제는 꽃과 빛, 체

험, 공연, 지역 상생이 결합된 봄날의 놀이동산 ‘꽃빛랜드’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특히, 회전목마와 에어바운스, 바이킹 등 신나는 놀이동산이 조성돼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유관기관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농촌활력센터 등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으로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지원 논의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보건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들 14명이 참여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공동 개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연계 관리해 온 사례 아동의 발달 및 건강상태, 가족환경 개선 현황과 연계 서비스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지역 내 아동복지 서비스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조폐공사, 지역화폐 활성화 ‘맞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안정성 강화

고창군이 1일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창군수, 성장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류·카드·모바일 상품권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고창사랑상품권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품권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해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울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조폐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품권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사랑상품권 운영 플랫폼은 오는 7월 2일부터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앱 'Chak'으로 전환되며, 기존 '고창사랑페



1일 체결된 고창군-한국조폐공사 업무 협약식 <사진=고창군>

이' 앱은 6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께서는 원활한 이용을 위해 'CHAK' 앱으로의 전환을 당부드린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순환시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해 온 고창군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다. 고창군은 해마다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880억원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창사랑상품권의 운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다자녀가구 차량 구매비용 지원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 향상... 최대 5백만원

김제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고충을 덜어주는 '2026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자녀 이상 가구의 다인승차량(대형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자녀 양육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07.04.01.이후

출생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11인승 패밀리카 신규구매 비용을 10%(최대 5백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차량등록 명의자여야 하며, 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거주요건으로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전북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신청자와 3명 이상 자녀는 동일 세대로 세대구성이 돼 있어야 한다.

차량요건으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차량구매 계약 건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서 승차정원이 6인 이상 11

인 이하인 차량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된 차량이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접수 마감 후, 5월 중 대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출고 및 등록을 마치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성장평가팀 신규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사업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방안 논의”

농업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농업주요 현안논의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군민과 함께 하는 농업정책 실현을 위해 '2026년 1분기 농업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어촌산업국장, 농업 관련 부서장 및 팀장, 그리고 농업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농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자문안건은 '고

품질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이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고창군은 2025년 312ha 수준인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올해 452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800ha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한 면적 목표 달성 방안 △예산 절감과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3회 고

창 정보리발 축제 홍보(4월18일~5월10일)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전력작물 직불금 신규품목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고창형 농촌인력 4대 핵심 서비스 △지자체-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농정 현안도 자문위원들과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대산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용적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로젠 ‘초대형 물류 허브’ 착공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기공식
1083억 투자 첨단 물류 거점 조성
AI 자동화 분류 시스템 도입

택배 및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로젠(주)이 1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서 물류터미널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기공식은 지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로젠(주)이 체결한 투자협약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로젠(주)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내 14만 5,816㎡(4만 4,000여 평) 부지에 총 1,083억 원을 투자해 물류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이다. 로젠(주)은 1999년 설립된 국내 물류 기업으로 택배 및 종합 물류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터미널과 지점 등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물류터미널은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최첨단 자동화 분류 시스템과 AI 기반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도입한 첨단 물류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 물류 산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은 “체결된 투자협약이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이날 기공식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며 “로젠(주)이 완주를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매출액 0.4% 최대 3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진행

완주군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접수 종료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방법 및 세부 기준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중량제봉투 재고 충분 가격 인상 계획 없어”

순창군이 최근 중량 정세 불안에 따른 중량제봉투 원료 수급 우려와 관련해, 군민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원료 수급난에 따른 봉투 부족이나 가격 인상을 우려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순창군은 현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은 중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수급 상황 변화에 대비해 사용량이 많은 20리터 규격 봉투를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공급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잉 구입이 지속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개인별 구매 수량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한 중량제봉투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권고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중량제봉투는 현재 충분히 확보돼 있어 군민들께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주요 관광지 7개소 분수 봄 맞아 운영 재개 “정비 완료”

남원시가 따뜻한 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위치한 분수 시설의 운영을 전격 재개한다.

남원시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던 주요 관광지 내 분수 시설에 대해 최근 점검 및 시운전을 모두 마쳤다. 이번에 가동되는 분수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요천 음악분수 △사랑의 광장 분수 △승월폭포 등을 포함한 총 7개 지점이다.

시는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답수 교체, 노즐 청소, 전기 설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가동 기간중에도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깨끗한 수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요천변에서 가동되는 요천 음악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천 음악분수 공연은 매일 저녁 7시 30분, 8시 30분 2회에 걸쳐 30분씩 진행돼 봄밤의 낭만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체육회, 군민 참여 걷기 식목 행사 성황리 개최

완주군체육회가 최근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완주 사랑 한마음 걷기 대회’ 및 나무 심기 활동을 성황리 열고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참여자와 지역 주민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걷기 대회는 진주 소외 월주중심이 완주군과 체결한 토지 무상 사용 협약 부지에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부지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 참여형 도시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현재 완주군에서 주민 편의 시설에 관한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걷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나무심기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행사 현장에서는 앵두나무 묘목 식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완주군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어린이 체험형 관광 한 달 운영

아이들의 여행가는 달 30일까지
전시관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아이들의 여행가는 달 in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어린이 중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순창발효테마파크 전시관 관람료는 최대 30% 할인된다. 기본 20% 할인이 적용된 프로그램 참여

시 추가 10%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매주 주말에는 전통놀이, 친환경 체험, 과학실험,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투호, 연날리기, 비누 만들기, 3D펜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바실러스균 거미줄 체험, 이스트 풍선 체험, 나만의 발효 친구 만들기 등 발효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교육형 콘텐츠 ‘발효 나라 실험실’도 상시 운영된다.

아울러 오프닝 퍼레이드, 사생대회, 매직 버블쇼, 가족 운동회 등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성황’

삼례수도산 파크골프장서 열려

완주군체육회와 노인회 파크골프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근 삼례 수도산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은빛 열정을 뽐냈다.

이번 파크골프대회는 완주군노인회 파크골프 동호인들 간의 화합과 건강 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어르신 등 참가자들은 그동안 치며 걸기를 즐겼다.

최근 파크골프는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기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주목받으며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하나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이번 대회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체육회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등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남성 요인 난임 시술비 지원

최대 100만원 1인당 3회까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그동안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던 난임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성 요인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로, 정자 채취가 가능하고 의학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항목은 고환조직 정자채취술(시술비 및 정자동결비),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며, 검사비, 시술비, 정자동결비를 포함한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의 90% 범

위 내에서 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술 전 반드시 남성의 주수지 관찰 보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시술 완료 후 비용을 청구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남성 요인 난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2027 국가예산 확보 ‘총력’ 중앙부처 방문

경찰수련원 등 국비 지원 건의
재난 대응 특고세 필요성 강조

남원시는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남원시장은 재정경제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을 만나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00억원)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면담에서는 △송동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 보강사업(6억원), △대산 감성 소화전 정비사업(10억원), △재난 취약계층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사업(4억원), △도통동 교통약자 보행환경 안전개선사업(6억원) 등 총 4건의 제안분야 특별교부세에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반복되는 호우피해에 선제적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

도록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조경미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도자전시관 건립(180억원), △울창목공예관 건립(154.1억원) 등 문화관광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2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올해 2월부터는 부처별 일제출장을 추진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6 ‘군민의 장’ 수상자 3명 최종 선정

공익·애향·효열 부문별 확정
군민의 날 기념식시 시상 예정

순창군이 제64회 군민의 날을 앞두고 순창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문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익장에 권오준 씨, 애향장에 황의욱 씨, 효열장에 아마우씨 가가리 씨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공익장 수상자로 선정된 권오준 씨는 30년 이상 순창군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해왔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 복지 증진에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자로 선정된 황의욱 씨는 출향 인사로서 고향 순창에 대한 각별



공익장 권오준씨



애향장 황의욱씨



효열장 아마우씨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다문화 아동을 위한 동화책 제작과 지역 봉사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효와 나눔을 함께 실천한 점도 인정받았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장은 순창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순창을 빛내주시는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4월 17일 순창군 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64회 순창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군민의 장 메달과 증서가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폭우 오기 전 점검 끝낸다” 재난 대비 ‘속도’

재해위험지구 5곳 합동 점검
풍수해 대비 사전 대응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6월)에 앞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주요 재해위험 및 예방·복구사업 현장(노암지구, 산동월석지구, 강기계, 산동산내지구 및 이백입촌지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현장예찰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점검에는 부시장, 안전건설국장, 안전재난과장, 산림복지과장, 농정과장 등 관계 부서 공무원 11명이 참여하여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반은 각 사업장의 공사 진행 상황과 여름철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진=남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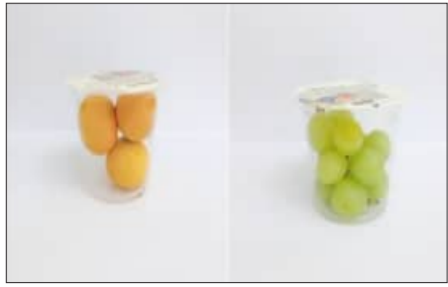
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했다.

남원시장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재해예방·복구사업지는 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추진 ... 건강한 식습관 형성

임실군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 14개 학교, 약 3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연간 30회에 걸쳐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2,902천원이 투입된다. 특히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 공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사과, 배, 포도 등 제철 과일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되는 과일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검사를 거쳐 소포장 형태로 제공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을 우선 활용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북면, 제77회 계북면민의 날 운영위원회 개최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달 25일 제77회 계북면민의 날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장인 유인선 계북면장을 비롯해 김기두 주민자치위원장, 송동훈 이장협의회장, 이장우 체육회장 등 계북면 주요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행사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제77회 계북면민의 날 주관 단체 선정과 면민의 날 선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주관단체로는 계북면 체육회가 선정됐다. 계북면 체육회는 행사 종료 시까지 축제 기획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면민의 날은 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별할 예정이며, 4월 중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한 뒤 5월 중 개최되는 2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면민의 날 행사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비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28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투입해 동향면 일원에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약 1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농촌유학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구축된다. 이번 선정은 지난 2023년 부귀면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지는 동향초등학교와 동향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학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과도 가까워 정주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안군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8년 상반기에 1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무주, 축산농가 지원 나서

임실군, 염소 농가맞춤형 지원

임실군이 염소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염소농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자재 지원을 넘어, 시설 현대화부터 우량 혈통 개량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책이다. 염소사육농가의 숙원사업인 축사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춘 염소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지원항목은 크게 시설현대화(기자재), 혈통개량 및 번식효율화, 사료 효율 개선으로 나뉘며 총 사업비는 3억원 규모이다. 먼저, 시설 현대화 분야에서는 축사 환경을 쾌적하게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깨끗한 축산농장' 발굴

무주군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발굴에 주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족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위생관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연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농가는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 가족 번뇨 관리, 악취 저감 노력, 방역 및 위생관리 수준 등을 평가받게 된다. 특히 가족 번뇨 처리와 정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반값등록금 등 9개 분야 지원

(제)장수군예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를 지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장수군예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을 선별한다. 이번 장학금은 총 9개 분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생 희망장학금 △특기 장학금 △예체능문화인재육성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대학·비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과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지역

교입학우수자 장학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아우르는 맞춤형 장학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학업 지속과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2년 이상 장수군에 등록된 군민 또는 그 자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 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재단 사무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이사회 심의

를 거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하고, 5월 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희 사무국장은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 숙박형 프로그램 공식 인증

초등학생 대상 '1박 2일 밤하늘 별빛 산책' 인증제 심사 통과 '숙박형 인증프로그램' 획득

무주군은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1박 2일 밤하늘 별빛 산책'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심사'를 통과해 '숙박형 인증프로그램'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오감 만족과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자연·과학·놀이

를 결합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다. △군충박물관 관람과 △생태 임무 활동, △천문과학관 별자리 관측, △사계절 썰매장 체험 등이며, 생태 감수성 형성과 창의력 증진, 기초 체력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영석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장은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 학습 흥미를 높이고 긍정적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국가가 청소년활동의 내용, 지도자, 운영체계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획득은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활동 개시

발대식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임실군이 옥정호의 수질 보호와 오염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모집한 2026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28명의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옥정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사전 차단 및 관리, 불법 어로행위, 세차, 쓰레기 무단투기, 축산농가의 가족번뇨 무단 처리 등 수질오염 불법행위 단속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에 앞장선다. 이에 따라 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옥정호 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지킴이 근무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군은 봄을 맞아 옥정호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및 물안개길 등을 찾는 관광객과



임실군이 옥정호의 수질 보호와 오염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모집한 2026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임실군>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옥정호 봄꽃축제에 수많은 관광객이 임실 옥정호를 방문하는 만큼 상수원 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 감시 활동과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수질보전

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사전 집중 수거 활동 통해 깨끗한 옥정호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43회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총 107명 신입생 93세 최고령 어르신 입학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사회복지회관 2층 강의실에서 신입생 어르신과 내빈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장수군 노인대학은 지역 노인복지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입학식을 통해 총 10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특히 93세의 최고령 어르신이 입학해 평생학습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

했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교양강좌, 노래교실, 웃음치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지랑과 수확여행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된다. 이와 함께 교양안정 교육과 치매 예방 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피부과·안과 등 무료 건강진료 서비스도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벚꽃축제에서 즐기는 미식관광

치즈붕어빵부터 한우까지

올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옥정호 벚꽃 축제에 오면, 화려한 볼거리에 더해 맛있는 먹거리까지 미식관광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군은 봄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4월, 임실군의 봄을 대표하는 '2026 옥정호 벚꽃축제'를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가운데 임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를 선사한다. 행사장에는 '먹거리 존'을 마련하여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먹거리를 한층 풍성하게 준비했다. 푸드트럭 6대를 포함한 총 13개의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며, 특히, 임실N 치즈를 활용한 치즈붕어빵과 치즈핫도그 등 이색 간식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장 곳곳에 배치된 푸드트럭 이외의 푸드부스 또한 간편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된 '옥정호 한우특화거리'도 축제 기간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고품질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구이용 한우 외에도 갈비탕, 불낙전골, 육회비빔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요리들을 제공해 축제 미식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시행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목적

무주군은 1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6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전 부서 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윤출촌)의 강의를 들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이행 사항과 △도급·용역·위탁과 건설공사 발주 구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범위 등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감미경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은 법령상 의무 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 등을 학습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꼼꼼히 분석·관리해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납세 형평성 확보 위해 강제집행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성과 거둬

장수군은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지속하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군은 사전 조사와 거주지 확인을 통해 수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해 강

제 집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가방 등 총 11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약 9백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고액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 장산교회, 부활절 맞아 오산면에 백미·성금 기탁

익산시 오산면은 1일 '장산교회(담임목사 정영선)'가 백미 280kg(100만 원 상당)과 성금 2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산면에 있는 장산교회는 매년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위기가정 지원에 사용되고, 백미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영선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인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옹포면, 주민 손으로 '문그로우 정원' 조성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정비 후 정원 조성

익산시 옹포면에서 주민들의 손길로 푸른 정원이 탄생했다. 옹포면은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1일 지역 내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정비하고 '문그로우 정원'을 조성했다. 이번 활동에는 새마을부녀회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정비를 진행한 뒤 나무와 꽃을 심으며 쾌적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식재된 나무는 연암

농원 송경락 대표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기증한 100만 원 상당의 '문그로우' 50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문그로우는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은은한 향을 지닌 수종으로, 그동안 방치된 공간을 쾌적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정원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기증해 주신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앞으로도 정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장수지역자활센터, 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구중)는 지난 달 26일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수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됐으며, 장수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겨울철 동안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장수읍 주요 시가지와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청정 장수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장수지역자활센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활동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 고산농협, 영농철 일손돕기·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심전심' 운동 확산 캠페인 농협 임직원 등 40여명 참여

완주 고산농협은 1일 영농철을 맞아 비봉면 일대에서 '농심전심' 운동 확산을 위한 일손돕기 및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가졌다. '농심전심' 운동은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범농협 캠페인으로 고산농협 임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 40

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해에 정리하지 못한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자재 등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을 방문, 수박모 정식 작업을 도와 적기에 정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완주=김명곤기자



고창 성송면지사협, 직접 만든 반찬 나눔으로 이웃 돌봄 강화

고창군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국진, 민간위원장 김중학)가 지난 달 31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가득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밑반찬 4종과 함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간식을 꾸러미로 제작하여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했다. 김중학 민간위원장은 "우리 이웃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국진 성송면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봉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성송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적인 반찬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이웃사랑회, 화재 피해 주민에 성금 전달

정읍시 장명동 봉사단체 이웃사랑회(회장 전용술)는 지난 달 31일, 관내 마을에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성금 15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이웃사랑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전용술 이웃사랑회 회장은 "예

기치 못한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피해 주민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막막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임실 운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장학금 기탁

봄기운이 완연해지며 꽃망울이 서서히 터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지역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미래 인재를 향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지난 달 30일 군수실에서 운암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민경)가 임실군 애항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화사한 봄날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정성이 담겨 그 의미를 더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힘이 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박민경 회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중앙동 소양집, 착한가게 21호점 지정

군산시 중앙동(동장 김중훈)은 1일 관내 음식점 소양집을 '착한가게' 21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출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참여 사업으로, 중앙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눔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날 현판 전달식에는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한 소양집 간에는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중훈 동장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가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중훈 중앙동장은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생활 속에서 물 절약하는 방법

- 양치컵 사용**: 100L 물 절약
- 설거지 통 사용**: 100L 물 절약
- 샤워 시간 2분 줄이기**: 약 24L 물 절약
- 빨래는 모아서 한번에**: 약 145L 물 절약

〈一事一言〉



점심시간에 멈춘 행정,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초소로 떠올랐다. 정오부터 한 시간 동안 민원 창구를 전면 폐쇄하는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행정 서비스의 주인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성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노동권의 가치와 공공성의 충돌

제도의 명분은 명확하다.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며,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휴게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로 인해 온전한 식사가 불가능했고, 이는 업무 집중도 저하와 감정 노동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후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지표는 노동 환경 개선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과다.

하지만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서비스와 다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필수 공공재다.

공공서비스의 대원칙은 '중단 없는 보편적 접근성'에 있다. 공무원의 노동권 개선이 시민의 행정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면, 이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행정의 시계가 시민이 아닌 공급자의 편에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간의 양극화'가 부른 시민의 박탈감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생활 패턴의 괴리다. 임금근로자 대다수는 9시 출근, 6시 퇴근의 굴레에 있다. 이들에게 점심시간은 관공서를 방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 인감증명 발급이나 복합 민원 상담 등은 여전히 창구 업무에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에게 점심시간의 닫힌 문은 더 높은 장벽이다. 결국 직장인은 사소한 행정 업무를 위해 연차나 외출을 소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기회비용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이 제도에 적응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대안 없는 불편을 묵묵히 견디는 시민들의 인내를 오독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확산되는 제도... 실종된 사회적 합의

검토 중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가 확산의 동력이 됐으나, 정작 수혜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1시간의 행정 공백이 주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속도전'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독소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무조건적인 휴무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권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갈등의 해법은 이분법적 선택에 있지 않다. 민원 수요가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대를 정밀 분석해 인력을 배치하는 '유연 근무제'의 정착, 교대 근무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보장, 그리고 대면 업무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행정 기술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의 시계는 '시민의 하루'를 향해야

행정은 멈출 수 없는 엔지니어링이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시민의 삶이 정지하지 않으며, 행정적 요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필연적인 과제이나, 그것이 공공성이라는 대원칙을 흐르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복지로 증진이다. 행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순간 관료주의의 벽은 높아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기계적 확산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공무원의 점심 1시간을 존중하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1시간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

행정의 시선이 '국민의 하루'를 향할 때, 점심시간의 닫힌 문은 비로소 시민을 향한 소통의 창으로 다시 열릴 것이다.

사설

공공기관 이전 2차전, 전북의 준비는 완벽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발맞춰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치·경제·학계·언론·도민 등 각계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전방위 유치 활동에 돌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재편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전북의 이번 행보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언론, 유관기관, 민간이 총망라된 범도민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일 과제를 두고 지역 사회 전반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경쟁력이다.

전북은 이미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기반 금융 생태계는, 타지역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핵심 자산이다. 여기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속속 집적되면서 금융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강점이다.

농생명 산업과 기후에너지 분야 역시 전북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농생명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산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전북은 금융, 농생명, 에너지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이전

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전 대상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관이 이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성장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중앙부처 및 이전 대상 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치 경쟁은 결국 정보력과 실행력의 싸움이다. 정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추진위가 단순한 협의의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전략 생산과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사회 전체의 변화와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유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이자, 지역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범도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전략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극대화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이제는 준비된 역량을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다.

문화재 열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
(보물 제292호)

-분류 - 유적건조물, 불전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개암사 (감교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6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감독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

선했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0회 동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로 최근 간행한 '사국지' 등이 있다.

▲오늘의시

4월의 노래 / 정호승

사월이 오면
저 산을 뺨으리라
산새도 살지 않는
사람들도 쫓겨간
저 붉은 산을 뺨아
바다에 던지리라
개꽃이 피고
개꽃잎이 흩어져도
저 붉은 산을 뺨아

바다에 던지고
자유의 무덤 앞을
떠나가리라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

선했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0회 동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로 최근 간행한 '사국지' 등이 있다.

신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

선했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0회 동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로 최근 간행한 '사국지' 등이 있다.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전략입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JP 유 Tel_063.226.5888
준택 E-mail_jhchoi3075@daum.net

qp Tel_063.254.0056~7
대홍정판사 E-mail_hi056@hanmail.net

AP Tel_063.251.0987
아트엔포트 E-mail_ap0987@daum.net

대홍정판사

김제에 깃든 봄날의 즐거움 4색 축제 여행 시작

4월 꽃빛드리축제부터 6월 모악산 뮤직페스티벌까지

김제시가 4월부터 6월까지 계절의 흐름에 맞춰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이며 관광객과 시민들을 유혹한다.

화사한 봄꽃을 시작으로 먹거리, 자연, 음악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4색 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상춘객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이번 4색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 감자, 드넓은 보리밭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기대되는 봄축제를 알아보자.

설렘 가득한 도심 속 감성 쉼터, '꽃빛드리축제' (4월 3~5일)

가장 먼저 봄의 문을 여는 '꽃빛드리축제'는 화사한 봄꽃과 빛, 감성이 어우러진 도심형 봄 축제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봄날의 놀이동산 '꽃빛랜드'라는 콘셉트로 꾸며진다. 낮엔 형형색색의 봄꽃이 밤에는 빛을 품은 프로그램들이 공간을 채우고,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형 라이브 공연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회전목마와 바이킹, 에어바운스 등 키즈 어트랙션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직접 캐고 맛보는 봄의 하루, '광활 햇감자 축제' (4월 18~19일)

4월 중순에는 김제의 대표 농산물인 햇감자를 주제로 한 '지평선광활햇감자 축제'가 열린다.

온 가족이 함께 넓은 들녘에서 감자 수확 체험을 즐기고 다양한 감자요리를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농촌 축제로, 방문객들은 농부의 땀방울과 김제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업의 가치를 체감하는 등 온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올해는 사전접수를 통해 햇감자 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봄바람 따라 걷는 초록빛 위로,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 (5월 3~5일)

계절이 무르익는 5월에는 드넓은 보리밭이 장관을 이루는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보리밭을 거닐며, 행사장 곳곳에 멋진 풍경과 함께 조성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과 보리를 활용

한 지역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미식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낙조가 아름다운 망해사와 새만금까지 함께 둘러본다면 김제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록 산자락에서 즐기는 선율,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6월 13~14일)

봄의 끝자락이자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상반기 축제의 매미를 장식한다.

모악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관람하며, 여유롭게 음악과 계절의 정취를 즐기고 친구, 연인과 함께 모악산 인근 맛집과 카페를 방문해 축제의 여운을 나누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면, 즐거움이 두배로 다가올 것이다.

오는 6월에는 풀벌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편안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직페스티벌을 찾아 일상 속 심포 같은 시간, 4색 축제 여행을 마무리하기 추천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상반기를 장식할 4개 축제는 김제가 매력적인 사계절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제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